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담대히 살아야 할 이유는 주님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국가 봉쇄령이 9월 현재 2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경제 활동과 국내 여행 등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와 국제 여행 등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아직도 국경은 폐쇄되어 있어 국가 간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국가 봉쇄령이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남아공은 9월 2일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630,595명이며, 회복자는 553,456명, 사망자는 14,389명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8월부터 정점을 지나 하루 1 만 여 명 이상 확진자가 증가할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하루에 1 천 명에서 2천 여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회복율은 약 87% 정도로 많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완화된 경제 활동으로 이동이 잦아져 언제라도 2차 대유행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남아공 국민들과 정부가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아공 내 종교 활동 규제는 완화되지 않아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50 인 이하의 집회를 해야 하며, 집회 전·후에 방역해야 합니다. OIM 텐트 교회도 7월 11일에 텐트에서 대면 예배를 재개했다가 추운 날씨와 텐트 설치와 철거, 방역 등이 여의치 않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9월 봄이 되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9월 5일부터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매주일 새벽부터 텐트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일, 방역, 개인 간의 거리 유지 등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에스와티니 왕국에서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만나 어린이 급식 센터에서도 국가 봉쇄령으로 급식을 중지하였다가 지난 7월부터 재개하였습니다.



감염의 염려와 거리 두기 등의 문제로 제약이 많지만, 지역의 영양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본 사역은 시골 지역과 편부모 자녀들 그리고 고아들을 대상으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기억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총회 지구촌의료개발기구(이사장:조재호 목사, 총무:윤신영 목사)의 후원으로 에스와티니 왕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긴급 구호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지구촌의료개발 기구는 전 세계에서 의료를 통한 선교 뿐만 아니라, 긴급 구호 등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귀한 기구입니다.



선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에스와티니 왕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촌 마을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랑의 실천과 나눔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교 현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선교 경험과 현장을 배우는 **GALA (God's Worker's in Africa and Latine America)**라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마릴리아의 정기중 선교사, 상파울로의 박종필 선교사 그리고 남아공 케이프 타운의 이규성 선교사와 프리토리아의 김승범 선교사가 함께 모여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 역사와 현장을 배우는 모임입니다.



이를 통해 보냄 받은 땅을 더 깊이 배우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 시작한 모임입니다. 마치 축제(GALA)와 같은 선교 현장을 만들어가는 선교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선교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고, 활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COVID-19의 확산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셨습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대면 예배가 어렵기에 사회도, 교회도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내면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 현장을 지키며,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있던 자신의 처지에 맞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 분들과 후원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도 잘 버텨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9월 3일

남아공 김승범 윤순미 선교사 드림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ungbum.kim.357

주 소: Postnet Suite. #192,

P/Bag X20009, Garsfontein 0042,

Pretoria, South Africa

전 화: +27-72-237-5995

카톡 아이디(ID): dosakv 김승범

이메일: dosakv@gmail.com

후원계좌 예금주: 김승범

국민은행 045-21-0839-965

신한은행 561-001-99999-372